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12월]

#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2. 1. 7.

##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2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5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10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 미국 VC, 가상자산 시장에 300억달러 투자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미국 VC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300억달러(약 35조 71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 (2021.12.26.)

\* 출처 : '가상자산 생태계에 36조원 베팅한 美...韓은 걸음마 (이데일리 김연지 1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13751>

- ▶ 이는 65억달러를 기록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과거 9년간 가상자산 시장에 쏠린 VC 투자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음. 또한 역대 최대 연간 투자금인 80억달러(2018년, 약 9조 5200억원)를 넘어선 수준임
- ▶ ‘디지털 금’ 역할을 넘어 NFT와 디파이, 웹 3.0,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 가상자산의 확장성에 VC들의 투자가 쏠리는 것으로 분석되며, 블룸버그는 “디지털 자산이 명백히 주류로 편입됐다”며 “가상자산을 둘러싼 모든 프로젝트가 (VC로부터) 넉넉한 자금을 확보 중”이라고 평가함
- ▶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FTX의 10억달러 규모 시리즈B 라운드로 회사는 앞서 지난 7월 소프트뱅크와 세쿼이어 캐피탈, 서드포인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180억달러로 끌어 올림.

### □ 글로벌 2030 슈퍼리치 83%, 가상자산 보유 중

-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자산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2030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2021.12.17.)

\* 출처 : 2030 슈퍼리치들 “가상자산 투자中, 내년엔 더 늘릴 것” (파이낸셜 뉴스 이구순 12/17)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57434>

- ▶ 특히, 응답자의 53%는 투자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48%는 내년 중 가상자산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함

##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 해 외

#### ○ 프랑스 · 스위스

-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위스가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CBDC)를 통한 외환거래 시험 프로젝트를 성공함 (2021.12.09.)

\* 출처 : 프랑스·스위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외환거래 실험 성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12091042023803c4c55f9b3d\\_1&md=20211209112045\\_S](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12091042023803c4c55f9b3d_1&md=20211209112045_S)

- ▶ 프랑스 은행 (Banque de France, BdF), BIS 혁신 허브 (BISIH), 스위스 국립 은행 (SNB)은 ‘프로젝트 주라’(Project Jura)라는 제목의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wCBDC)의 시범 운영에 성공함
- ▶ 프로젝트 주라에서 탐구한 실험 기술은 분산형 컴퓨터 노드(Corda)의 피어 투 피어(P2P)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를 검증하는 동시에 통치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제 및 비즈니스 규칙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스위스, 프랑스 또는 유럽 연합 당국의 wCBDC 발행을 보장하지는 않음

#### ○ 호주

-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는 CBDC 발행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2021.12.09.)

\* 출처 : 호주중앙은행 “CBDC에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상황 바뀔 수 있어” (뉴스비전 차승민)  
<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59>

- ▶ 로우 총재는 ‘페이먼트 서밋’에서 “호주가 소매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강력한 이유가 여전히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기술과 대중 선호도가 빠르게 변화하며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 ▶ 또 “디지털 지갑 개발로 토큰이나 RBA가 지원하는 디지털 형태 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소매형 CBDC나 디지털 AUD(호주

달러)가 될 것” 이라고 밝힘

## o 일본

-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2023년 이후에야 CBDC 발행을 고려하던 일본은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 (2021.12.01.)

\* 출처 : 일본, 디지털화폐 발행 빨라진다?... '중국 견제 위해 2023년서 앞당길 수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4045593>

- ▶ 지난 10월 초 새로 취임한 고바야시 경제안보담당상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 국제사회가 CBDC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아니라, 자국의 CBDC 발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수 차례 CBDC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음
- ▶ 고바야시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CBDC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국가 안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야 한다” 면서 “일본은 언제든지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됨
- ▶ 다만, 일본은행(BOJ)은 지난 4월 디지털 엔화 도입 1단계 실험에 착수했으며, 이후 2023년까지 계획된 정책은 없는 상황으로 당시 BOJ 측은 디지털 엔화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면서 CBDC 도입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o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에르볼라트 도사예프 총재는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탱게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이 완료됐다” 며 “국내 금융기업과 일부 해외 파트너가 참여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곧 발표할 것” 이라고 밝힘 (2021.12.10.)

\* 출처 : [글로벌 CBDC 동향] 카자흐스탄 “CBDC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내년 말 도입 여부 결정” 外 (코인리더스 박소현)

<https://m.coinreaders.com/a.html?uid=16214>

- ▶ 도사예프 총리는 “아직 디지털 탱게 도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라며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결정을 내릴 것” 이라 설명함

## ○ 짐바브웨

- 짐바브웨 중앙은행 총재 존 만구디아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허용하는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검토 중” 이라며 “지난 10월 아프리카 최초 디지털 화폐를 출시한 나이지리아에 연구팀을 파견할 계획” 이라 밝힘 (2021.12.10.)

\* 출처 : [글로벌 CBDC 동향] 카자흐스탄 “CBDC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내년 말 도입 여부 결정” 외 (코인리더스 박소현)

<https://m.coinreaders.com/a.html?uid=16214>

## □ 국 내

###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한다” 고 밝혔으며 한은은 그 이유로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함 (2021.12.26.)

\* 출처 : 한국은행, CBDC 발행할까...“2022년 CBDC 도입 기반 강화”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12261641169197a029d22e5e\\_45](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12261641169197a029d22e5e_45)

- ▶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 간의 법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예정임
- ▶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 3월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8월부터 CBDC 모의실험을 진행중이며 해당 사업은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용역을 맡아 현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이용해 진행 중임
- ▶ 국민은행은 클레이튼 기반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을 개발했다며 가상자산, 지역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충전, 송금, 결제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은행은 “내년 한은 CBDC 모의실험 연계 테스트에 적극 참여할 것” 이라는 의지를 내비침

###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 해 외

##### ○ 미국

- 디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지침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1.12.24.)

\* 출처 : 미국 친(親) 암호화폐 상원의원, 포괄적 암호화폐 법안 발의 (디센터 홍유진)

<https://decenter.kr/NewsView/22VF1PWR45>

- ▶ 해당 법안은 과세안 수정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투자자 보호 조항 개설 등을 골자로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암호화폐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 루미스 의원은 “현행 증권법은 암호화폐 및 다양한 토큰에 적용되기엔 너무 모호하다”며 “새로 제안하는 법안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업계 환경을 고려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함 (2021.12.09.)

\* 출처 : 한자리 모인 美 암호화폐 기업 총수들 “규제 명확히 해달라” (디센터 홍유진)

<https://decenter.kr/NewsView/22V870EE8N>

-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8일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미국 금융 혁신의 도전과 이점 이해’를 주제로 청문회를 주최하였으며, 이는 암호화폐 분야 주요 인사가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임
- ▶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코인베이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이 이뤄진다면 미국은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법

과 규제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비트퓨리 CEO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 머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업계 인재들은 미국을 벗어나 규제 친화적인 환경을 찾아 떠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 ▶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가상자산 분야 기술에 대한 규제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소 투박하고 낙후됐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이해하기도 전에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 IMF

- 국제통화기금(IMF)는 투자와 결제수단 성격을 띤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일관적인 글로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2021.12.11.)

\* 출처 : IMF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공조 필요...투자과 결제 구분해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73>

- ▶ IMF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운영 국가가 불분명하고 거래가 주로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금융안정위원회(FSB) 주도 아래 국제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수 국가를 포괄하는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관할구역을 이동하면서 불법적으로 차익을 얻는 거래행태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 IMF는 투자와 결제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를 구분해 제정하고, 가상자산 기업 신고제를 도입하며,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이중 투자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증권 브로커, 딜러와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증권 규제기관이 이를 관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지불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의 경우 중앙은행 또는 지불 관련 감독기



관이 은행 예금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 ○ 아랍에미리트

-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430억 달러(한화 약 286조983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캐피탈의 최고경영자(CEO) 칼둔 알 무바라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고 밝힘 (2021.12.13.)

\* 출처 :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암호화폐 투자 중” (핀포인트뉴스 최희우)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12131707544850f97614fb6c\\_45](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12131707544850f97614fb6c_45)

- ▶ 무바라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5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 가치로 급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산업을 회의적으로 보지만 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으며, “어느 시점에서 최종 형태의 규제환경이 마련되면 암호화폐는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함

## ○ 터키

- 코인데스크US의 보도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터키 의회에 가상자산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출처 : 터키 내 가상자산 행방은? · 에르도안 대통령 “가상자산 법안 곧 의회 제출”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윤경)

<http://www.coindesku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92>

- ▶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을 마련해 뒀으며 지체하지 않고 의회에 보낼 계획” 이라고 밝혔으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 터키의 물가와 환율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나, 터키중앙은행은 지난 4월 자국 내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결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금지 조치를 냈으며 샤후 카브즈오울루 (Şahap Kavcıoğlu) 당시 터키 중앙은행 총재는 “재무부에서 가상자산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지만 금지할 의도는 없었다” 라고 밝힘



## □ 국 내

###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2일 처리됨 (2021.12.3.)

\* 출처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2023년부터 250만원 이상 벌면 20% 과세 (매일경제 박수호)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1114377>

-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됨
- ▶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올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 가상자산을 일시적 ‘기타소득’ 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은 유지돼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250만원이 넘어가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지방세 2%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임

### ○ 정치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해 “이미 있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며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2021.12.22.)

\* 출처 : 이재명 “NFT, 이미 있는 사실 부정할 필요 없어” (조세일보 조영진)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2747>

- ▶ 이재명 후보는 21 게임 유튜브채널 ‘김성희의 G식백과’ 에 출연해 “가상 세계는 전에는 황당무계한 얘기였지만 이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갈 것” 이라며 “그 안에서 NFT 형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특정인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NFT 형태로 만들어 팔곤 하더라” 고 말함

▶ 이 후보는 “(NFT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면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이는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라며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세계의 흐름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우리가 앞서가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미 코인 거래액이 코스피 주식시장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국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고 NFT(대체불가토큰)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힘 (2021.12.30.)

\* 출처 : 이광재 의원, 가상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받고 NFT로 영수증 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45841>

▶ 이 의원실은 “현재 국내 지갑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면서 “1월 초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에 지갑 주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실은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상자산 후원금은 일단 원화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만 받는다는 방침이며 한 명당 이체할 수 있는 가상자산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함

▶ 후원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은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해 국내 업체가 발행한 2~3개로 예상되며,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을 거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 관리규칙에 따라 집행될 예정임

▶ 이 의원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함

##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창출’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로 부상한 NFT를 입힌 플레이투언(P2E)의 사행성, 보안과 해킹 문제, NFT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들에 대해 냉철히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2.21.)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NFT, 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59677>

- ▶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NFT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 박 조사관은 NFT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NFT는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돼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해 향후 규정해야 한다”고 분석함
- ▶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임

## 4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 해 외

#### ○ 메타(페이스북)

-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내정된 앤드루 보즈워스(Andrew Bosworth)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10년간 우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른 기업보다 먼저 이를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2021.12.24)

\* 출처 : 메타 CTO 내정자 “웹3 시대 SNS, 블록체인 적용해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75>

- ▶ 보즈워스 CTO 내정자는 2006년에 페이스북에 입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뉴스피드, 그룹, 메신저, 영상통화 서비스 개발을 거쳐, 광고 운영 플랫폼 부문에서 부사장 직을 수행한 메타의 핵심 인사로 그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메타의 사업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 보즈워스 CTO내정자는 웹3.0 시대의 SNS 비전을 논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지만 깊은 호환성(deep compatibility)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으며, 메타는 최근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후 웹3.0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 또 “메타가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된 자산인 NFT로 작업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면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과 암호화폐로 운영되는, 일종의 인터넷 기반 협동조합인 분산형 자율조직에도 투자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함

## o 나이키

- 나이키(Nike Inc.)는 14일 블록체인 기반 가상 운동화 제조사 ‘RTFKT’를 인수하였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브랜드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기 위함” 이라고 밝힘 (2021.12.17.)

\* 출처 : 나이키, 블록체인 기반 제조사 ‘RTFKT’ 인수 (한국섬유신문 이지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78>

- ▶ RTFKT는 최신 게임 엔진, NFT, 블록체인 인증 및 증강 현실을 활용하여 독특한 가상 제품 및 경험을 만드는 회사로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사용자는 NFT 암호 자산으로 가상 토지 및 아바타 의상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입할 수 있음
- ▶ 존 도나호 나이키 CEO는 RTFKT인수 발표에서 “나이키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포츠, 창의성, 게임, 문화의 교차점에서 운동선수와 창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단계” 라고 밝힘

## ○ 페라리

- 페라리는 스위스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벨라스 네트워크(Velas Network)와 제휴,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진출할 예정 (2021.12.27.)

\* 출처 : 페라리, 벨라스 네트워크 손잡고 NFT 시장 진출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073>

- ▶ 페라리는 2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포뮬러 원 레이싱 사업부인 스쿠데리아(Scuderia) 페라리와 벨라스 네트워크가 다년간 계약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으며, 이 계약을 통해 벨라스 네트워크는 포뮬러 원 레이싱에 참가하는 모든 페라리 브랜드에 대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예정
- ▶ 벨라스 네트워크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페라리의 브랜드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며 정규 레이싱 대회 외에도 온라인 대회와 e스포츠 브랜딩도 참여하며 여기에는 최근 각광받는 NFT 발행 사업도 포함

## ○ 바이낸스

-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DWTCA)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바이가 암호화 자산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과 조언을 제공하게 될 예정 (2021.12.21.)

\* 출처 : 바이낸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과 업무협약 체결..."암호화폐 허브 되도록 지원" (코인리더스 박소현)

<https://m.coinreaders.com/17158>

- ▶ 두바이 세계무역센터(Dubai World Trade Centre)가 20일 공식 채널을 통해 "두바이 세계무역센터는 디지털 자산, 제품, 사업자 및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 자산 및 암호화폐 포괄 구역(comprehensive zone) 및 규제 기관으로 거듭날 것" 이라 밝혔으며, "두바이 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민관이 협력해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 준수 및 국경간 송금 추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 설명함

## ○ 소프트뱅크

-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운용하는 50억달러(5조9000억원) 규모 중남미 펀드가 전체 자산의 10%를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남 (2021.12.9.)

\* 출처 : 日소프트뱅크 “중남미펀드 10% 가상화폐에 투자” (매일경제 신혜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91454>

- ▶ 파울로 파소니 소프트뱅크 중남미 펀드 이사는 유라시아그룹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남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가상화폐라는 것은 명백하다” 고 전했으며, “이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이라고 함. 이어 “투자에 대해선 ‘인재를 따르라’ 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전 세계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 고 강조함

## □ 국 내

### ○ KB국민은행

-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지난 17일 블록체인 기반의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Multiasset Digital Wallet)’ 의 시험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알렸음

\* 출처 : KB국민은행,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 시험 개발 완료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362>

- ▶ 이번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은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CBDC 외에도 가상자산, 지역화폐, NFT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충전, 송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됨
- ▶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에 디지털신분증, 스마트 키, 전자서류 기능 등을 추가해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음